

C군의 B급 잡설, 영단어 어원탐구 Chapter - 6

찬바람이 불어오는 10월에 들어서니 환청같이 귓전에서 떠나지 않는 노래 두 곡이 있습니다. '잊혀진 계절'과 'When October Goes'입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시월의 마지막 밤을....."로 시작하는 '잊혀진 계절'과 "And when October goes, the snow begins to fly. Above the smokey roofs I watch the planes go by....."로 시작하는 'When October Goes'..... 두 곡 모두 지나간 사랑과 그로 인한 아픔을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조용하고 청명한 가을밤에 듣고 있다면 닭똥 같은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뺨을 타고 굴러내릴 듯한 기분까지는 아니더라도, 먹먹한 무언가가 마음을 스치는 듯한 노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먹먹하고 알송달송한 기분이 들 때는 마음의 '안식'을 취하는 일이 제일 좋은 약 같습니다. 이쯤에서 너무 상투적이고 진부한 화제 유도였지만 '안식'과 관련된 단어로 C군의 영단어 어원탐구 제6장을 시작하겠습니다.

Requiem

어원 : 라틴어 re-(강조 접두사) + 라틴어 quies(quiet)

진혼곡이라는 의미로 알려진 영단어 'Requiem'이 있습니다. 'Requiem'의 어원은 라틴어의 강조 접두사 're-'와 영어로는 quiet의 뜻을 가진 라틴어 'quies'입니다. 're-'는 again이나 back의 의미가 일반적이는데 왜 갑자기 강조 접두사라는 단어가 등장하는지 의아하시죠? 사실 어원을 조사하면서 C군도 're-'에 대해 강조 접두사라고 표현한 것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쪽에 권위가 있는 자료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그 권위에 눌러 again, back이 웬지 뭔가를 강조하는 것 같은 심상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매우 자연스럽게 들었습니다. 뭔가 자꾸 다시 되돌아가는 것(again, back)이 회귀의 어떤 대상을 부각시키고 강조하는 느낌입니다. 강조 접두사 're-'와 'quies'(quiet)의 결합인 'Requiem'의 단어 자체의 뜻은 'quies'(quiet)가 가진 '조용함, 평온함'의 심상과 이에 대한 강조의 의미로 부터 '안식'이 됩니다. 그런데 '안식'이 어떻게 진혼곡이 되었을까요? C군이 'Requiem'의 유래를 찾아보니 천주교 위령미사의 시작에서 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천주여,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옵소서)라고 제창한 것에 그 유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Requiem' 자체도 이미 라틴어에 있는 단어였던 것이고, 이것이 위령미사의 시작에 쓰이면서 서양에서 진혼곡을 나타내는 말로 통용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Tranquility

어원 : 라틴어 trans-(across, over) + 라틴어 quies(quiet)

'고요함, 평온함'이라는 뜻의 'Tranquil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cross 또는 over의 의미인 라틴어 접두사 'trans-'와 'quies'(quiet)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trans-'는 직접적으로 across 또는 over라기 보다 앞서의 're-'와 같이 강조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것도 그냥 조용한 것이 아닌, 'over'하게 조용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평화롭고, 차분하고, 평온하고, 잔잔하고, 안정된 느낌을 마구 풍기는 단어입니다. 꽤 고급져 보이는 단어 'Tranquility'를 학습한 김에 같은 뿌리에서 파생된 형용사와 동사도 다음과 같이 함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Tranquil

형용사 : 조용한, 평화로운, 잔잔한 등

Tranquilize

동사 : 조용해지다, 가라앉다, ~를 조용하게 하다, ~를 가라 앉히다.

영시에나 어울릴 듯한 고급스러워 보이는 'Tranquility' 못지않게 같은 어원을 가지는 고급져 보이는 명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Quiescent

어원 : 라틴어 quies(quiet)

'조용한, 움직이지 않는, 침묵의 (병 등이)호전되는' 등의 뜻을 갖는 'Quiescent'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Quiescent'는 어원이 라틴어 'quies'(quiet) 그 자체라서 어쩌면 제일 먼저 소개가 되었어야 할 단어인데, 라틴어 'quies'와의 빠른 친화감 형성을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니 그나마 친숙한 단어가 'Requiem'이라서 'Quiescent'의 순번이 밀렸습니다. 'Quiescent'의 뜻인 '조용한, 움직이지 않는, 침묵의 (병 등이)호전되는'을 보면 뭔가 다 중심 의미인 'quies'(quiet)와 일맥상통하는 것들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조용하고, 침묵하니 조용하고, 병 등이 호전되니 (심기가) 조용하고... 그러고 보니 '조용함'에 관련된 심상으로부터 확장될 수 있는 의미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렇게 확장될 수 있는 의미 중에 호기심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Acquiescence

어원 : 라틴어 ad-(to) + 라틴어 quies(quiet)

'Acquiescence'의 어원은 영어 'to'에 대응하는 라틴어 접두사 'ad-'와 라틴어 'quies'(quiet)입니다. 여기서 'Acquiescence'의 앞의 두 글자는 'ac-'인데 왜 어원은 'ad-' 일까요? C군의 추측은 이렇습니다. 원래 의미대로 하자면 'Acquiescence' 앞의 두 글자는 'ad-'인데 발음 등의 이유로 'ad-'가 'quies'(quiet) 앞에 붙으면서 'ac-'로 변화된 게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어원을 보며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라틴어 접두사 'ad-'에 대응하는 영어의 'to'는 전치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부정사에 쓰이는 to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전치사 'to'의 심상은 어떤 것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cquiescence'를 어원 그대로 해석하면 조용함을 향하는 것이 됩니다. 이를 어떤 상황을 가정하여 한 번 더 의역하듯 풀어보면 어떤 일에 대해서 반대, 찬성, 향의, 무관심, 침묵 등의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할 수 있는데, 'Acquiescence'는 이 중 침묵의 태도를 향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 침묵의 태도를 향하므로 'Acquiescence'의 뜻은 '묵인하다, 묵종하다, 억지로 따르다' 등이 되는 것 같습니다.

'Acquiescence'를 마지막으로 'quies'(quiet)와 관련된 단어들의 어원탐구를 마치고 새로운 라틴어 어원으로 바뀌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Query

어원 : 라틴어 quaerere(seek)

명사로는 '질문, 의문, 의심, 문의', 동사로는 '~을 묻다, ~에게 질문하다' 등의 뜻을 가진 영단어 'Query'가 있습니다. 아마도 컴퓨터로 인터넷 등을 하면서 쿼리(Query)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므로 의미는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Query'의 라틴어 어원은 영어로 seek의 의미를 가진 'quaerere'입니다. 'quaerere'(seek)의 의미인 무언가를 찾거나 구하는 것으로부터 현재 영어로서 'Query'가 가지는 의미인 '질문, 의문, 의심, 문의, ~을 묻다, ~에게 질문하다' 등을 별다른 설명 없이도 쉽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누이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라틴어 어원 자체를 심각히 여기지는 마시고 그렇게 있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어원을 굳이 소개하는 이유는 영단어를 좀 더 기억에 쉽게 남게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라틴어 어원에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소개하는 라틴어 어원 'quaerere'(seek) 보다는 'quaerere'(seek)로부터 파생된 영어단어들이 같은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시어 어원에서 시작하는 하나의 중심의미로부터 각각 단어들의 다양한 의미를 자연스럽게 연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라틴어 어원 'quaerere'(seek)를 공유하는 영단어들을 몇 가지 탐구해보겠습니다.

Require

어원 : 라틴어 re-(again) + 라틴어 quaerere(seek)

'필요하다, ~을 필요로 하다' 등의 의미를 갖는 영단어 'Require'가 있습니다. 'Require'의 어원은 again의 의미를 갖는 라틴어 접두사 're-'와 라틴어 'quaerere'(seek)입니다. 어원 그대로를 해석하면 '반복해서 무언가를 찾는 것'이며, 이는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쪽으로 생각이 자연스레 옮겨갑니다. 이런 의미의 흐름으로부터 'Require'의 뜻인 '필요하다, ~을 필요로 하다'를 어원과 무리 없이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Inquire

어원 : 라틴어 in-(into) + 라틴어 quaerere(seek)

'Inquire'는 '질문을 하다, ~에게 묻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단어입니다. 'Inquire'의 어원은 영어 전치사 into에 대응하는 라틴어 접두사 'in-'와 'quaerere'(seek)입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을 향해 들어가다' 정도로 어원을 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복잡하게 가지 않고도 '무언가를 찾는 것을 향해 들어가다'로부터 'Inquire'의 의미인 '질문을 하다, ~에게 묻다'를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Acquire

어원 : 라틴어 ad-(to) + 라틴어 quaerere(seek)

'Acquire'는 '~을 획득하다, ~을 습득하다, ~을 손에 넣다' 등의 의미를 가지는 영단어입니다. 'Acquire'의 어원은 영어 전치사 'to'에 대응하는 라틴어 접두사 'ad-'와 라틴어 'quaerere'(seek)입니다. 어원을 그대로 한번 풀어보면 '무언가를 찾는 것을 향하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원 그대로를 풀어본 것과 현재의 의미인 '~을 획득하다, ~을 습득하다, ~을 손에 넣다'와는 거리감이 조금 있어 보이죠? 이런 경우 건전한(?) 추리가 필요합니다. 너무 억지스럽지 않은 건전한 추리로 단어의 어원과 현재의 의미를 매끄럽게 이어주는 고도(?)의 정신적 작업이 절실합니다. 어원 그대로의 풀이인 '무언가를 찾는 것을 향하다'에서 향하는 동작보다는 향한 결과에 주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것을 향해 행동의 방향을 바꾸고, 그 행동이 완료가 되면 비로소 행위자는 무언가를 얻게 될 것임

니다. 바로 이 찾는 행위의 결과에 주목하면 'Acquire'의 의미인 '~을 획득하다, ~을 습득하다, ~을 손에 넣다'가 어원과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 억지스럽지 않죠?

Acquisition

명사 : 획득, 습득, 취득물 등

그냥 넘어가면 심심하므로 'Acquire'와 관련된 명사 'Acquisition'을 간단히 한 번 리마인드(Remind)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굳이 적어봤습니다.

Quest

어원 : 라틴어 quaerere(seek)

게임에 관심있으신 독자분이라면 '탐구, 탐색' 등의 의미를 가진 'Quest'라는 단어가 매우 친숙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서 게임에 관심이 없어도 대부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Quest'의 어원도 'quaerere'(seek)입니다. 별다른 해석 없이도 'Quest'의 의미인 '탐구, 탐색' 등이 어원인 'quaerere'(seek)에서 바로 나옵니다.

Conquer

어원 : 라틴어 com-(강조 접두사) + 라틴어 quaerere(seek)

드디어 이번 영단어 어원탐구 6장의 마지막 단어 'Conquer'입니다. '정복하다. ~를 정복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 익숙한 단어입니다. 이 익숙한 'Conquer'의 어원은 라틴어 접두사 'com-'과 라틴어 'quaerere'(seek)입니다. 그런데 앞선 'Acquiescence'와 유사하게 'Conquer'의 앞 세 글자는 'con-'인데 어원은 'com-'입니다. 이 또한 'Acquiescence'와 비슷하게 발음 등의 이유로 'com-'이 'quaerere'(seek) 앞에 붙으면서 'con-'으로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알고 계시듯이 라틴어 접두사 'com-'은 with 또는 together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Conquer'의 어원에는 C군이 강조 접두사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C군이 굉장히 권위 있는 출처에서 찾아본 결과 가끔 'com-'이 with 또는 together 이외의 용법으로 무언가를 강조하는 데에 쓰이기도 하며 'Conquer'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원 그대로 'Conquer'를 풀어보면 중심 의미는 '무언가를 구하거나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복하다. ~를 정복하다'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건전한(?) 추리가 필요한 시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앞서 'Acquire'와 비슷하게 어원 그대로의 풀이인 '무언가를 구하거나 찾는 것'에서 동작보다는 행위의 결과에 주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여 찾은 행위의 결과는 그것을 얻은 것이고, 무언가를 얻게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정복하다. ~를 정복하다'의 의미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꿈보다 해몽인가요? (^_^)

지금까지 나름 건전한(?) 추리를 섞어가며 하얏게 불태웠습니다. 본 연재를 읽고 계신 독자분들께는 아마도 부족한 내용일 테지만, 내용을 채우는 과정이 결코 소홀하지 않음에는 일말의 거짓이 없습니다. 부디 애써 끝까지 읽으신 시간과 노력만큼 가치 있는 결과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P.S. C군의 잡설은 귀동냥에 근거하여 재구성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항상 유념해주세요. 🐼